

## 쾌적한 승차감 위해 풍절음을 줄여라

운전을 하다 보면 각종 소음에 노출된다. 주행 중 발생하는 소음은 승차감과 연결되기 때문에 최대한 소음을 줄이는 것이 안락한 승차 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여러 가지 소음 가운데 '풍절음'은 상황에 따라 굉음에 가까운 소리를 내기도 해 승차감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 ■ 풍절음은 왜 생길까?

풍절음이란 창을 닫고 고속으로 주행할 때 '슈슈', '샤샤' 하는 비교적 주파수 높은 소리(500Hz~5kHz)로 들려오는 것을 말한다. 주행 속도나 풍향에 따라 변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굉음에 가까운 소리를 내기도 한다.

자동차 풍절음의 원인은 차문에 부착된 고무몰딩이 헐거워졌기 때문이다. 비나 바람을 막기 위해 자동차 문 안팎으로 부착되어 있는 고무몰딩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 되는데, 이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와 소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 ■ 풍절음을 줄이는 방법은?

#### 1. 고무몰딩에 윤활제 도포

노후화 된 고무몰딩에 윤활제를 도포하면 풍절음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노후로 인해 딱딱해진 고무몰딩에 마른 천을 이용해 전용 윤활유를 얇게 발라준다. 가

죽 윤활제나 WD가 효과적이다. 하지만 문 바깥쪽 고무몰딩의 경우 상태에 따라 교체하는 것이 좋다.

#### 2. 윈드키퍼 시공

자동차 풍절음 차단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윈드키퍼'로 문이 열리고 닫히는 부분에 전체적으로 소음을 차단해주는 몰딩을 시공해 벌어진 문틈을 막아 풍절음을 차단하는 것이다. 셀프 시공이 가능한 튜닝으로, 간단한 것 같지만 내부는 별집구조로 되어 있어 소음과 바람, 미세 먼지 차단에서 효과적이다. 윈드키퍼는 차량 온도 유지에도 도움을 준다.

### ■ 풍절음 외 주행 소음 줄이는 팁

풍절음 외에도 주행 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불편한 경우가 있다. 차량 노후로 인해 엔진 자체 진동과 소음이 발생한다면 '보닛 후드 흡음재'를 통해 소음을 줄일 수 있다. 또 엔진 내부에 먼지와 이물질이 쌓이면 소음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엔진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엔진 내부 관리와 더불어 소음을 차단하는 흡음재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차량 내부로 들어오는 전체적인 소음을 차단하고자 할 때는 천정 엠보싱 작업을 하면 좋다. 힘은 들지만 셀프 시공이 가능하고, 복사열과 풍절음을 차단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다. 더불어 인테리어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천장 오염도 줄일 수 있다.

주행 중 발생하는 소음은 외부 환경뿐 아니라 운전습관과도 관련이 있다. 급출발, 급제동, 급선회할 때 트레드 노면이 미끄러지면서 소음을 만들게 되는데 이를 '스켈'이라고 한다. 스켈을 줄이기 위해서는 회전 구간에서 저속으로 주행하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 좋다.

타이어 공기압이나 마모 상태에 따라서도 주행 중 소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압과 마모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공명음을 줄인 저소음 타이어를 사용해 타이어와 노면간 발생하는 소음을 줄인다면 쾌적한 주행 환경을 만들 수 있다.

##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는 '카운터 스티어링' 운전법

비나 눈이 오면 도로가 미끄럽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평소에 타이어의 마모 상태를 자주 확인하고, 적절한 공기압을 유지해줘야 미끄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 젖은 노면에서 운전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미끄러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카운터 스티어링(Counter Steering) 운전법을 구사해야 한다.

### ■ 카운터 스티어링이란

카운터 스티어링이란 자동차의 뒷바퀴가 미끄러지는 쪽으로 핸들(스티어링 휠)을 돌려 차량을 제어하는 운전 기술이다. 회전관성체의 반작용 원리를 이



용한 선회 법으로, 이 기술을 이용하면 뒷바퀴의 미끄러짐을 막고 스핀을 방지할 수 있다. 뒷바퀴가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면 스티어링 휠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미끄러지면 왼쪽으로 꺾으므로 '역핸들'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핸들을 너무 과도하게 돌리거나 빠르게 원래대로 조정하지 않으면 더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어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

### ■ 카운터 스티어링 주의사항

차의 뒷바퀴가 바깥쪽으로 미끄러지는 상황이라면 스핀을 느끼자마자 바로 핸들을 꺾어야 한다. 살짝 미끄러졌거나 스핀에 재빨리 대처한 경우에는 핸들을 조금 꺾어도 되지만 45도 이상의 큰 스핀을 겪

을 때는 0.5초 이내에 핸들을 꽤 많이 틀어야 한다. 그렇다고 핸들을 좌우로 과도하게 많이 움직이면 안 되며, 차의 방향이 제대로 잡히면 당연히 핸들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또한 갑작스러운 핸들 조작으로 인해 차량 후미가 틀어지고 있을 때 급브레이크를 밟아서는 안 된다. 급제동이 걸리면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더 큰 스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속 30km가 넘어 가거나 미끄러운 빗길 혹은 빙판길 위에서는 카운터 스티어링으로도 차량 통제가 어렵다. 따라서 비나 눈이 오는 상황에서는 안전거리를 2배 이상 확보하고 감속, 방어 운전을 해야 한다.

'카운터 스티어링' 운전법은 운전 초보자들에게는 약간 어려운 기술이지만 꾸준히 시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다. 단, 연습은 안전한 곳에서 숙련된 운전자와 함께 해야 한다.

# "과도한 빗, 고통의 시작입니다." 자신에 맞는 용자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 김주용 (Jay Kim)

중앙일보 주택용자 강의  
Passkey MLO Review 공동저서 /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SNA Financial (dba Lending Plus)  
kimjy9855@gmail.com

NMLS#1560314

1. 일반 주택용자
2. 재용자: Cash out 재용자, 이자율/기간 조정 재용자
3. 정부 주택용자: FHA, VA 용자, 리버스 모기지 등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문의도 환영합니다**

**213.332.1718**

3450 Wilshire Blvd, Suite 310  
Los Angeles, CA 90010